



예수께서 내시는 식사 오병이어

5BREADSand2FISH.ORG 515 Crocker st, LA, CA 90013 5Breadsand2Fish@gmail.com 323.400.7830



멕시코

2016

1

사랑을 지키는 일에 대해

오늘이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런 날

겨울 수련회 이야기

상처입은 군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18개의 크고 작은 교회에서 온 아이들 중에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눈 내리는 것을 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몇 년만에 내리는 눈을 맞아본지라 들뜨고 신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강단 위에서 남자 아이들 서너몇이 막대기를 들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해주려고 서 있는거냐고 묻는 목사님께 장난꾸러기들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타워즈.....”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같다가, 어떨 때는 안계신 것도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몇 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했어요. 주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종교라는 이상이 아니라, 주는 믿는 주의 자녀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합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자녀들만이 주의 영광을 볼 자격이 있다고 하시며, 믿음은 원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 몇이 와서 목사님을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목사님





은 아이들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안아주고 기도해주셨습니다. 440명 혹은 450명의 한국 아이들이 영어로만 말하는 겨울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차려주는 한국밥을 먹고, 학교에서는 미국식교육을 받으며, k pop을 듣고, 부모들과 다소의 언어장벽이 있는 아이들의 독특한 상황.

“Friends, let me tell you something.”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빌리 킴 목사님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는 미국 2세목사님입니다.

빌리 목사님은 어릴 때 친구들이 집에 오면, 항상 검은쌀로 밥을 지어주시고, 교회에 가자고 친구들을 다 데리고 다니시곤 하셨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네들도 예수님 필요하잖아.” 라고 하시곤 하셨답니다.

지금은 대학부나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토네이도를 보내서 사람을 죽

이시는 거야?” 같은 질문을 하면, 빌리 목사님은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건 알아. 나랑 같이 교회갈래?”

깔깔대고 같이 웃었고, 정직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감에 푹 빠졌습니다.

수련회 마지막날 밤에 뛰고 찬양하고, 제이목사님이 이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들뜬 분위기를 어떻게 잘 정리해주시려나 걱정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 것으로 불길을 단번에 잡으셨습니다.

죽음도 그 발걸음을 늦추지 못하는 주님의 선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주만 듣고, 주만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상처입은 군사(wounded soldier)들을 만나곤 합니다. 수치와 외로움의 상처를 부여잡고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도 아무도 함께해주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선한 건지,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인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열매로써 알게해주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

자마자 멕시코로 향하는 운전대를 잡고 계속 잠에 빠지시는 목사님. 잠시 쉬시라고 말씀드리며, 커피와 물을 사서 놓아드리고 대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화품이 나서 차선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등줄기에 땀이 쫘쫘 났습니다.

피곤에 겨워 깊이 잠이 드신 목사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인적이 드문 깊은 밤길을 운전하다가, 시야가 좁아지고, 좁아져서 작은 공처럼 느껴지며 거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하신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주께서 지휘하는 거룩한 전장터에서 자기의 상처와 아픔으로 멈춰서서 우는 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곡을 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상처를 들여다본다고 상처가 아



무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에 기쁨을 주시며 가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뛰어난 자랑할 것이 없는 상처입은 군사들을 주께서 잠시 만나게 하시고, 잠시 같이 일하게 하시고, 잠시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멕시코 연습한 지들, 용사들의 싸움

하수구가 막혀 물이 아주 천천히 내려갈 때, 파이프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퍽퍽퍽 순식간에 땅을 파고, 오래되어 녹으로 가득찬 파이프를 자르고, 깨끗한 새 파이프로 연결하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끝내고, 웃으면 더러운 물이 튀긴 부엌까지 걸레로 깨끗하게 치워주고, 다시 일하러 건물을 짓고 있는 곳으로 가는 엠마누엘을 보면서 용사들의 싸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용사는 연습하지 않은 자, 비겁자나 겁쟁이

와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디딜 곳 없는 가시밭이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가 아무 것도 아닌듯,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힘차게 나가는 용사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소리가 모든 허망한 것들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처음 뽈라를 방문하시고, 나단과 함께 곡괭이로 선인장을 옮겨 심으시던 예선생님은 얼굴을 선인장에 긁혀서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감하셨습니다. 뽈라에 겨울비가 몇자마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스키드로에 겨울비가 내리던 날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주님의 신비

그렇게도 추운 날, 바지를 입지않은 남자가 비가 철철 내리는 거리에 오랫동안 누운 것을 보고, 유선교사님과 헥터 아저씨가 마른 박스를 다시 깔아드리고, 이불과 우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달라고 하시던 그 분은 비가 퍼붓던 그 밤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로 얼마전에 대화를 나누는 누군가의 생명이 새벽녘에는 이미 그 몸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에 그 마음조차

휘청거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놓친 것같은 마음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까 자책감에 LA 스테프들이 눈물젖은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신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아주지 못한 괴로움에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린 들, 죽음에 대





해서는 그 어떤 유명한 누구에게도 결정권이 없으니 그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서는 오늘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고, 오늘 누군가가 주께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령기 때문에 그 비를 뚫고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회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매일 아침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따뜻한 커피가,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슬픈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추하고, 비참하고, 절절한 삶의 그늘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치열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한 생명도 잃지 않으려 애를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실한 마음과

영혼 깊은데서 흐르는 눈물방울들을 세시는 전능자의 사랑의 영원한 깊이와 공회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찬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스테프 미팅이 끝나고, 오병이어 식구들이 홈카페 준비를 시작할 때 즈음, 밤새 내린 비로 젖은 도시에는 이런저런 분주한 발걸음들이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금방 시작될 홈카페 사역이 문을 열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아침인사를 건네자 다들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심전심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펴고, 오병이어 홈 카페의 커피와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신청하게 하고 과자같은 기념품을 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류를 열심히 작성하는 두 남자 옆에는 그 주위에서 방해하며, 이런저런 의미없는 소리를 내는 여자분도 보였습니다.

“당신이 내 테이블에 가까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테이블을 세팅하던 남자가 그 여자분에게 그렇게 사정없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창고 건너편에 텐트를 펴고 밤을 보낸 사람들은 추위를 떨쳐버리지 못한듯 아직도 텐트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텐트 앞은 깨끗하게 빗질을 해서 근처에 가지런

히 모아놓은 쓰레기 더미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저 길을 하나만 벗어나도, 부유하고 부지런한 도시의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LA에 겨울비 내린 아침입니다.

이번주에 비가 많아 올거라고, 망가진 천막을 고치던 택원, 도널드 그리고 유병식 선교사님이 새삼 감사합니다. 누구는 필요없다고 했지만, 목사님은 개스로 불을 피우는 키 큰 야외용 난로를 구해다 놓을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겨울이 깊어, 많이 추워도 곧 돌아올 봄을 기대하며, 그 영혼이 온기로 덮힐 따뜻한 날들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겨울비가 고인 땅을 향해 열리는 새 아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망하거나, 비극을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았습니다. 황금빛이 이글 이글하며 하늘이 열리고, 오랜 시간을 견딘 겨울 나무가 힘차게 가지를 뻗고있는 바로 아래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죽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찬 비가 계속 오던 때에, 건물 지붕에 고인 물이 모여서 떨어지는 곳에서 하늘을 벗은 채로 누워있는 남자. 눈 앞에서 그 생명을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어 놓았던 남자.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누군가 마시라고 가져다드린 따뜻한 커피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며, 길에다 확 붓

고 던져버린 일이 남자가 이땅에서의 마지막 날했던 행동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어깨에 날카롭게 느껴지던 이른 아침에 김수동 집사님이 사주신 히터의 포근한 열기 아래서 헥터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눌 때, 아저씨가 그 남자의 죽음이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더 좋은 자켓들이 더 많았거든요. 남자에게 자켓을 더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가 커피를 쏟았지만, 커피를 한 잔 더 갔다 드렸으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유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온 정민자매도 최선을 다하지 못해 그를 놓친 것이 아닌가 자책





하며 괴로워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더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최선이 너무 보잘 것이 없어요. 그 최선이라는게 항상 충분하지가 않아요.”

헥터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며 하늘 아래 한 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헥터 아저씨는 커피를 한 잔 더 가져다 드리지 못한 것과, 따뜻한 자켓을 더 가져다 드리지 못한 것과 이런 저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 앞에서 무기력한 마음으로만 가득해서 할 말도 없이 가만

히 서 있는데, 몸도 마음도 추운 가운데 히터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쾌적하게 살고, 마음이 즐거워 하는 음식으로 항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다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리 자격이 충분해서 이 추운 겨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풍족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날들을 살며 강과 같은 평강도, 바다 물결같은 의로움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그 허리를 길갈 이, 거리 같이 하여 죄와 아픔으로 짓밟힘이 아프고, 아픕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의로운 이름, 예수께 의지하여, 우리로써는 할 수 없는 농임과 자유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멕시코 밤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나단 전도사님이 멕시코 뿔라에만 있다가 몇 개월만에 LA 아버지 창고로 떠났습니다. 비가 좀 그쳤는가 싶었는데, 엔세나다나 티화나 쪽은 비가 더 오고 있다고 고넬리오가 나단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다닐 때는 비가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나단이 혼자 길을 가니 도착했다고 하기 전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들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목사님은 땅이 부드러워 일하기 좋다며 신나서 나가셨습니다. 입구 옆으로 사람이나 짐승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뾰족하고 커다란 선인장을 옮겨 심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장관인지, 바람이 굵은 빗방울을 마음대로 날리는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며칠 비가 내렸고, 특히나 어제 밤새껏 내린 비로 집 옆에 길이 조금 무너져 내렸고, 작은 도랑과 고인물이 많이 생겼지만 이 정도면 안전하고 양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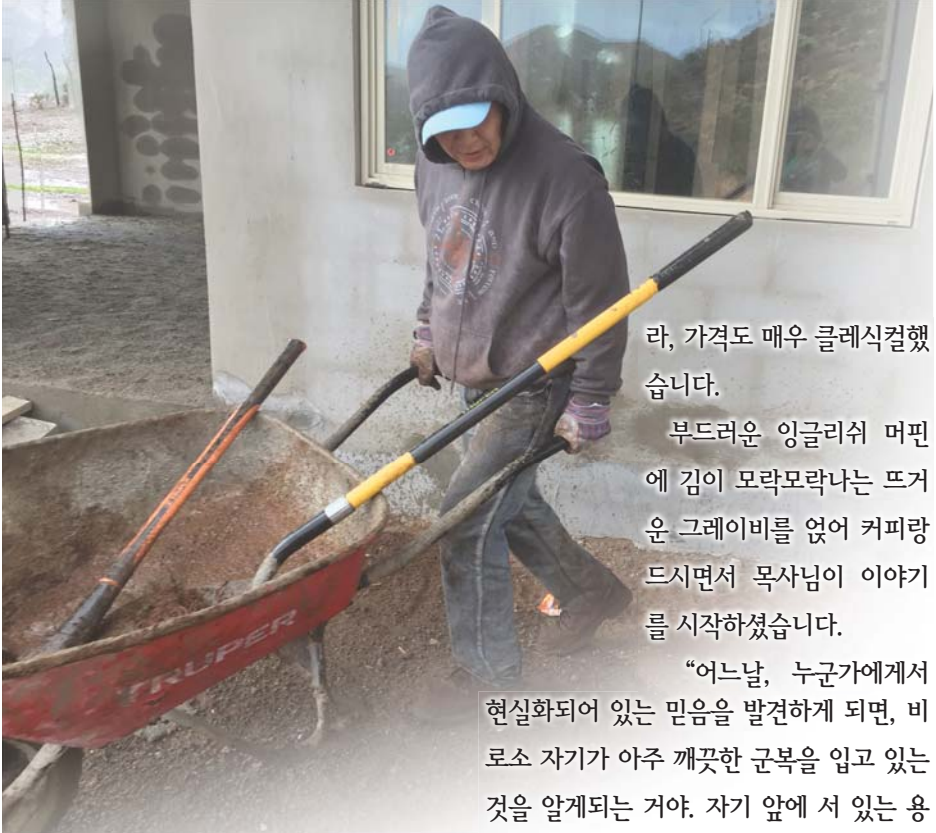
비오는 날을 그렇게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비만 오면 LA 식구들 생각에 저절로 코끝이 시큰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비에 젖어버린 이 한 밤, 한 밤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밤을 견디고, 이른 아침 찬 비에 젖어 빨갛게 얼어서 꼬부라진 손가락으로 커피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떨리는 어깨가 눈에 선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옳은 것, 정한 것들을 부족하다고 헐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것, 옳지 않은 것, 마약, 술, 잠시 위안을 주는 듯하며 소중한 생명과 영혼을 소진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반대합니다.

전능자가 주신 생명의 약속은 아무 맛도 색도 없는 흙에서 잎을 내고, 사람으로는 빗을 수도 없는 섬세함으로 고운 색을 내고, 모든 생명들이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숨결로도 그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게 합니다.



용사의 몸에서 나는 피 비린내와 거룩한 불에 온통 탄 냄새



라, 가격도 매우 클래식했습니다.

부드러운 잉글리쉬 머핀에 김이 모락모락나는 뜨거운 그레이비를 얹어 커피랑 드시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날, 누군가에게서 현실화되어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아주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알게되는 거야. 자기 앞에서 있는 용사의 피로 얼룩진 군복을 보고나면 말이야. 그의 온 몸에 난 깊은 상처를 보고 숨이 막히는 거지. 남에게 군복을 입으라고, 입어야 한다고만 외쳤지, 한번도 진짜 전쟁터에는 참가한 적이 없거든.”

마시던 커피 잔을 내려놓고 반사적으로 가방 안의 작은 수첩을 꺼내 그의 말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행이 훨씬 지난 흰색과 하늘색과 회색 꽃무늬의 종이 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고 작은 테이블이 바깥바깥 붙어있는 미국식 식당에 목사님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걸보면, 우리처럼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뿐 아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전쟁터의 상황을 듣는 거야. 오고가는 포화가 눈에 선하고, 주의 군사들이 진격하는 전차 소리가 귀를 때리고.... 방금, 높이 치솟는 거룩한 불길 속을 뚫고 나온 듯이 온통 불에 그을은 냄새와 피와 재로 범벅이 된 용사 앞에 서는 거지.”

나의 두려움과 머뭇거림과 비겁함과... 여러가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용사의 몸에서 나는 진한 피 비린내와 불에 탄 냄새가 코에 맡아지면, 그때서야 자기가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엎드려서 그냥 울고 싶었고, 믿음으로 입은 전신갑주가 전쟁의 상흔으로 그저 가득하기를 바랐습니다. 거룩한 불길이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태워버린 타는 냄새가 나의 골수와 영혼까지 깊이 배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현실화 될 때에, 종종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초라하며, 말로 할 수 없는 곤고함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안에만 거룩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과 연결된 길을 여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멕시코

사랑을 지키는 일에 대해

아침부터 공사일을 하고, 함께 일하시던 분들도 다 돌아간 시간. 허기가 졌을 하비엘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 마리셀라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키가 작아,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짓궂은 놀림감이 되곤하는 하비엘이 오늘은 큰 맘을 먹고 목사님께 집에 가서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8일째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가 딱딱한 장갑을 한 겹 끼고 있는 것 같

이 느껴질만큼, 노동으로 억제될 대로 억제된 손으로 자기 가슴을 여러번 쓸어내렸습니다.

지난번 빅베어에 강사로 가셨을 때, LOLYA에서 준비해준 AVEENO 로션을 챙기고, 화장비누 2개, 치약, 아껴둔 마사지 팩, 핸드 크림 등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예쁜 박스에 넣고, 정민 자매가 한국에서 사다준, 정말 맘에 드는 넉넉한 표범무늬 스카프에 향수를 약간 뿌려 함께 넣었습니다.

꽤 큰 비닐 봉지에 필레미농 스테이크 5팩과 커다란 햄, 처음보는 올게닉 하얀 꿀, 히말라야 소금, 설탕, 무슨 무슨 양념들을 잘 챙겼



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주고 싶었습니다.

하비엘의 집은 뿔라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있는 집에 2층 침대가 둘이 있는, 19, 17, 14살 아이들 셋과 하비엘 부부가 살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시멘트 바닥으로된 하나밖에 없는 방에 침대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미안하시다며, 다들 그럴 필요없다고 극구 만류하는 데도, 찬 바닥을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목사님이 마리셀라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말을 꺼내시자 하비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포개놓고 또 다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이들도 맘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19살 라켓은 대학에서 공부 중이고, 둘째 사울과 막내딸 베파니도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셀라, 돈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있다가도 또 없는 것이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서로 많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든지 뿔라로 친구네 찾아오듯이 찾아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랑토랑하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생각나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셀라가 힘을 내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하비엘은 목사님을 ‘지미, 지미’ 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주중에 일하다가 주일에 LA에서 이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비엘은 그때까지, 이준 목사님인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목사인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미. 조심해 가세요.”

문앞까지 배웅을 나온 하비엘이, 문도 없이 형접으로 만든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에



서 오물이 흘러나가도록 길 쪽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두꺼운 굳은살이 박힌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던 하비엘의 콧노랫소리가 들리는 오늘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그의 발걸음이 날아갈듯 가볍습니다.

목사님은 누가 항상 사랑스럽기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따뜻한 불이라서, 우리가 지켜야하는 마음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고 악하여, ‘십자가에 못박으라!’ 소리치던 ‘나’ 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영화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을 처음봤을 때, 당신은 마치 크리스마스날 아침 같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남자가 브래드 피트이고, 여자가 안젤리나 졸리였다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부름과 설레임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겠지요.

언젠가 나도 멋진 사랑을 했었던 적이 있었지....하는 것 말고, 오늘이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한없이 용서하고, 진심으로 서로가 빛나기를 바래주는 그런 사랑말입니다.

3년쯤 전에 아무 것도 없을 때, 앞으로 기둥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심어놓은 시계꽃(passion flower) 덩굴이 지금은 기둥 끝까지 타고 올라갈 만큼 잘 자랐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성숙해가고, 매일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한번에 한 걸음씩만 가자하고...



뿔라의 입구에 대문에 세워지고, 기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엔세나다의 남북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1번도로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 입구에 서서 사진을 찍거나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고, 사진찍는 것도 다 좋은데, 주위 몇 마일 반경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급한 볼 일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문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곳에 선인장을 심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왕 옮겨심을 거면 큰 선인장을 심자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았고, 말로만 할 때는 대단히 신나고 재미난 일 같았습니다.

뿔라의 첫번째 산 중턱에서 제법 큰 선인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며칠 계속 내린 비로, 땅은 말랑말랑 했지만, 문제는 며칠간 물을 잔뜩 먹은 선인장의 뿌리를 캐내어 입구까지 가지고 와야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목직한 선인장을 실은 손수레가 질퍽한 땅에서 균형을 잃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짜증 한번 없이 따가운 가시들을 피해 선인장을 다시 수레에 싣고 몇 걸음 가시고, 새 길을 열고, 또 몇 걸음가시고.....

목사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안타까와하면서 수레에 실리지 못하는 선인장 두 개의 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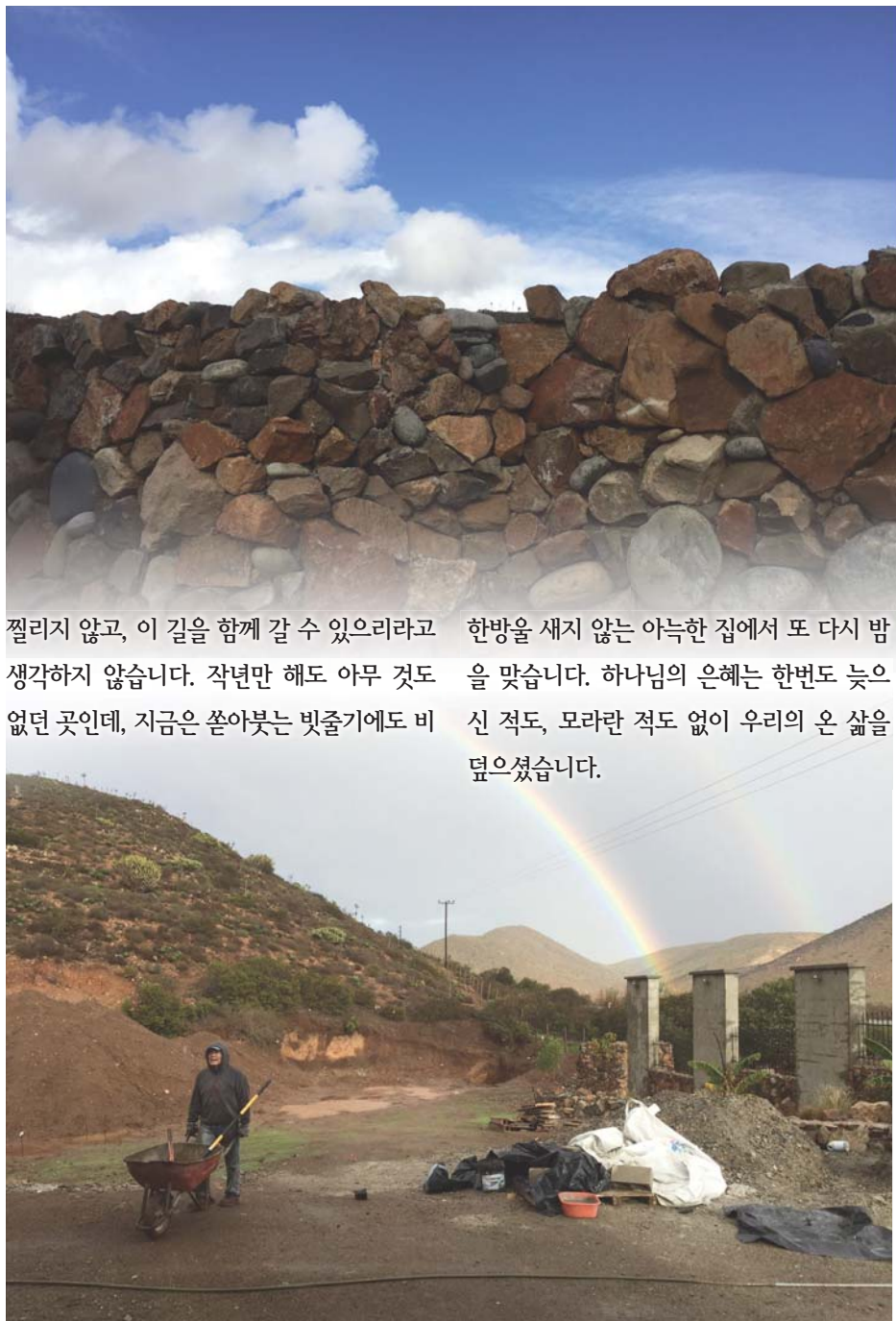
잘 잡고, 험한 가시밭을 내려오는데,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시럽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에 들린 선인장이 무겁기도 하려니와, 자칫 각도가 잘못되면 손가락을 찌르는데, 손이 시려워서 그런건지 가시가 뼈속까지 찢려들어오는 듯이 많이 아팠습니다. 발 밑에 밝히는 땅은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거의 발을 디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저, 한번에 한발씩만 앞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장서서 무거운 수레를 밀고 가는 그의 뒤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도 참을성이 많아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인 채, 가져온 선인장을 또 열심히 심고 있는 그의 뒤에 깜짝 반가운, 선명한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다 보일만큼 그 색이 진하고 분명했습니다.

목사님은 일에 열중이시라, 무지개가 떴는지도 모르셨습니다. 우리가 채 알수 없는 많은 순간들에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 일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오는 비에 옷 한번 젖지 않고, 가시에



떨리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아무 것도
없던 곳인데, 지금은 쏟아붓는 빗줄기에도 비

한방울 새지 않는 아늑한 집에서 또 다시 밤
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도 늦으
신 적도, 모라란 적도 없이 우리의 온 삶을
덮으셨습니다.

남자가 기도하는 스테프들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식구 중에 암으로 투병중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녀가 쓰러져 병원에 계신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 오병이어 식구들이 걱정하던 차에 그녀가 야윈 얼굴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작은 웃음을 입가에 지으시고, 설탕과 크림을 준비하는 그녀를 보고 모두들 안심하고 반가워하셨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힘이 조금 없어보였어도 그녀의 웃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홈카페를 열기 전에 다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Jesus’ 를 크게 외치고 섬김을 시작합니다. 모든 푸드 드라이브도 항상 먼저 ‘Jesus’ 를 힘차게 외칩니다.

다들 손을 잡고 눈을 감자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커피를 기다리며 줄을 서 계셨던 빨간 셔츠를 입은 남자분이 걸어나왔습니다. 남자가 기도하고 있



는 스텝들 뒤에서,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스텝들이 보기 전에 열린 다시 줄로 돌아가셨습니다.

“Jesus!!”

어둠을 깨우는 외침으로 섬김이 시작되었고, 망가진 삶의 한 가운데서 어제도 추운 밤을 보냈을 남자는 주님께 무엇을 간구했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커피는 안드세요? 따뜻하신가요?”

키 큰 남자가 줄은 안서고 불 앞에서 서 있길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줄 서기 싫어서요. 나한테 커피 한 잔 가져다 주실래요?” “그건 안돼요. 다 똑같이 줄을 서야합니다.”

“당신은 줄 안서고 그냥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옆에 서 있던 검은 잠바를 입은 다른 남자가 우리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줄 서세요. 줄이 굉장히 빨라요.”

그가 거들어주니 고마운 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 일등으로 커피 받았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기분이 썩 좋아 보이는 남자.

오늘 일등이면, 새벽 다섯시쯤 부터 줄을 섰을 테고... 두 시간쯤 기다렸을텐데....커피



가 엄청 맛있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줄이 아무리 길어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빨리 배식이 되는데, 그가 그렇게도 일찍부터 줄을 선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의롭지 못함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비좁고, 자비가 없는 시간 안에 구겨넣지 못하도록, 회개함과 통회의 심정으로 오직 그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영원의 약속이 짧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는 거룩으로, 의로운 열매로 맺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Home Cafe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절되었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도널드 아저씨가 아버지 창고에 들어오던 첫날, 23년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연락이 닿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었지요.

홈리스로 몇년을 살다가 최근에 스테프가 되신 로버트가 몇 년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디즈니랜드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해야할 임무를 안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타주에서 오신 부모님과 오랜만에 되도록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가 양해를 구했고, 목사님은 그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기뻐해주셨습니다.

가족 우체국에서도 처음 시작되는 회복의 과정 중 하나가 가족들과 연락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동 집사님께서 히터를 기증하셨습니다. 개스도 빵빵하게 넣어주셨고, 히터 틀 생각에 소풍 가기 전날처럼 들떠서 내일이 기다려진다던 유병식 선교사님 말씀처럼, 추운 밤을 길에서 보낸 홈카페 식구들이 따뜻하게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카페 문열기 30분 전. 일찌감치 출석 있던 흑인 청년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조금 기다리면 곧 커피랑 배식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말아요. 금방 시작될 거예요.”

그가 손가락으로 배식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빵을 셋업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다 모여서 큰 소리로 ‘Jesus!’ 하고 기도한 다음에 시작돼요.”

그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약간의 행복이 아침을 환하게 합니다.



Big White Preacher, 랜디 목사님

코로나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 거의 7년을 스키드로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랜디 목사님의 별명은 BWP Big White Preacher 이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본인의 집에서 있으라고 얘기해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그때도 의지할데 없이 주의 이름만 붙잡을 때 만나, 목사님네와 우리 사이에 서로 힘들고 아플 때,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인 셈입니다.

랜디 목사님과 캐런 사모님께서 아버지 창고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준 목사님이 여쭙보시자, 랜디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랜디목사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원 congressman으로 출마하신다고 이준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오신 것입니다.

정치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참 필요한 때에 좋으신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게되었습니다.



LA 푸드 드라이브 스케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신 식사입니다.



일주일에 8만명분의 식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많은 곳에서 푸드 드라이브가 열립니다. 기도해주시십시오.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각 지역으로 30분전에
가시면 됩니다.



Monday: 4:00 PM (delivery onl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3225 Tyler Avenue
El Monte, CA 91732

Monday: 3:00 PM

E. Rancho Dominguez Service Center
4513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uesday: 2:30-3:30 PM

Ramona Gardens Recreation Center
2830 Lancaster Ave.
Los Angeles, CA 90033

Tuesday: 2:30-4:00 PM

Victory Outreach Rehab, Compton
613 N. Crane Ave. Compton, CA 90221

Wednesday: 2:40-4:30 PM

Slauson Recreation Center
5306 s Compton ave LA CA 90011

Thursday: 2:30-4:00 PM

4716 E Cesar Chavez Ave.
Los Angeles, CA 90022

Friday: 2:30-4:00 PM

El Monte Senior Center
1441 Santa Anita Ave.
El Monte, CA CA 91733

Saturday: 2:30-4:00 PM

Salt Lake Park
340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문의: 5breadsand2fish@gmail.com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섬김을 통해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땅끝까지 책임짐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삶으로 선포합니다.

하는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서 거듭나는 훈련을 합니다.

내용: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품전쟁/번제의 삶/ 다드림

- ☐ LA, 멕시코, 브라질 각 3개월
- ☐ 각 3개월 과정에 \$1,000(총 \$3,000)
- ☐ 모집인원: 00명
- ☐ 신청기간: 2016년 2월 15일까지
- ☐ 신청 및 문의:

5breadsand2fish@gmail.com



1. Rebuild - 미국 LA

도시선교/도시교회, 도시를 교회로 섬기며 책임지는 훈련입니다.

엘에이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가난한 곳까지 3개월간 아버지 창고에서의 스테프 경험을 통한 공동체 훈련 속에 복음을 책임지는 삶이 무엇인지 훈련하며 경험합니다.

내용: CRUMBS/IMPACT/Be free and set free/도시교회

멕시코

2. Restore - 멕시코 뿔라 사역공동체
사역자로써,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



3. Renew - 브라질 상파울로

파벨라는 브라질에 있는 빈민촌들로서 오랫동안 공권력이 통제하지 못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필요한 곳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파벨라들에서 땅끝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4. 기타 준비사항

- (1) 숙식 및 훈련비용 포함
- (2) 비행기표는 본인 부담
- (3) 한국 여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시 미국 비자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어야 하며, 멕시코와 브라질은 각 6개월 무비자 입국가능합니다.
- (4) 미국 여권소지자는 브라질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5. 3R 미션 수행동안 참가자는 오병이어의 스테프 스케줄에 따라야합니다.

오병이어 이준 목사

하나님께서 지어 나아가시는 모든 것
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맛에 어울리
는 천상의 멋들어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빛과 그 빛을 받아내는 온
전하고 부드러운 조화가 하나님의 선하
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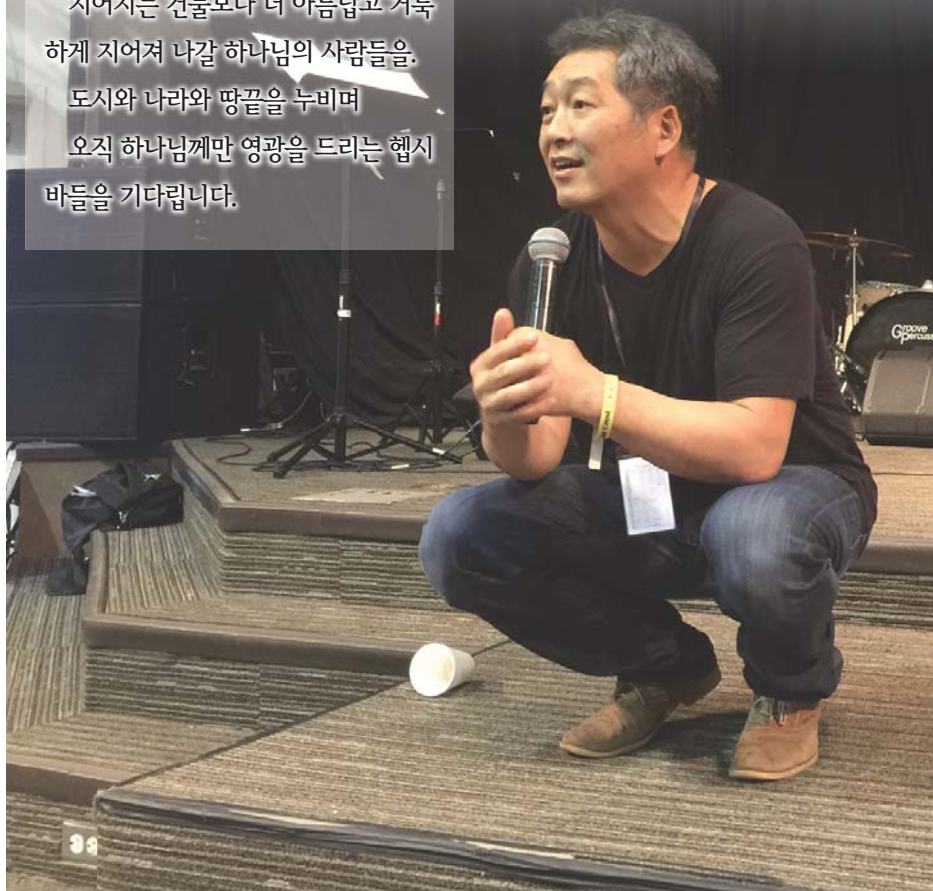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어지는 건물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
하게 지어져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시와 나라와 땅끝을 누비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험시
바들을 기다립니다.



REBUILD, RESORE, RENEW

도네이션

(1) Paypal 어카운트를 이용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http://5breadsand2fish.org/k-donate.html>

(2) 체크 check payable to: ORM 515 Crocker St, Los Angeles, CA 90013

(3) 은행이체를 원하시면(해외/국내 송금)

입금은행 : Bank of America

818-840-1600/142 E olive ave, Burbank CA 91502

입금주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Routing # : 026009593 / Account # : 000217028878

(4) 연락처: 818-531-5332